

1

음악치료 입문



1.1 음악치료 — 역사적 관점

라르스 올레 본데

음악이 흐르는 동안 당신의 모든 근심은 가라앉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고대(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음악은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소리와 음악을 포함한 고대의 치유 의례들이 여러 문화에서 존속되었다(Gouk, 2000). 샤머니즘은 사회인류학 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수정된 샤머니즘은 보통 현대 자기 계발 작업의 통합된 부분이다. 음악의 치유적 힘에 대한 신화와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문화에 수없이 많다.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사무엘상 1장)는 서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이다. 오르페우스는 엘빈(1975), 번트(1994; Bunt & Stige, 2014)가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음악치료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신화의 인물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대로부터 전승된 음악과 의료에 대한 철학 및 실제와 더불어 현대의 과학적 음악치료와 연결되는 지속적이며, 중단된 적 없는 전통이 존재하는가이다. 이는 퀴멜(1977)이 주장한 것이나 이 개념은 음악치료의 역사에 대한 책에서 심각한 비판을 접한다(Horden, 2000). 플라톤 이후 철학과 음악 이론에 대한 문헌에서 음악의 치유적 힘이 혼란 주제라는 것에는 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호든은 매우 초창기의 의학적 문헌(히포크라테스 시대)이 음악의 속성에 대한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원칙에 회의적 태도를 취했으며, 의학의 역사에서 음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논문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입증했다. “음악치료를 위한 개념적 여지를 만드는 것은 철학과 종교이다”(p. 44). 또한 호든은 의학과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한 영국의 2가지 표준 작업에 음악이 주제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바뀌지 않았다.

음악에 대한 논문에서 음악의 치유적 힘에 대한 장을 포함하는 전통은 아마도 보에티우스(기원전 600년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에티우스의 유명한 논문 ‘음악의 원리(De Institutione Musica)’는 중세시대 온 유럽에 널리 퍼졌다. 이는 대학 ‘4학(수학, 음악, 기하, 천문학)’의 읽기 과제 중 일부였으며(그림 1.1.1 참조), 의학 전공 학생들의 강의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했다. 보에티우스의 일화, 문장과 서술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간결한 이론적 가정에 기반을 둔 음악과 의학(또는 건강) 간 연계로서 중세 음악 문헌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Gouk, 2000; Horden, 2000).

1. (신)플라톤 학파의 이론에서는, 소리로서 음악의 화성적 진동 체계가 예를 들어 행성과 천체들의 혁명기에, 또는 플라톤이 ‘세계영혼’이라 지칭했던 대우주에서 밝혀진 진동과 비례 수의 소우주적 반영으로 해석된다.
2. 4체액이라는 의학적 이론(소위 말하는 체액의학, 또는 병리학)은 건강이 체액과 기질 간 균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의 마음(정신 질환)의 장애에는 신체적 기원이 있으며, 기질의 균형은 음악이라는 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 에토스 원칙은 다양한 선법의 음악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속성과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4. 의식(마음)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고, 음악은—민감한 마음을 통해—특정한 원리를 따르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4가지 가정은 다음 쪽에서 논의된다. 우리는 음악의 치유적 힘에 대한 오래된 고전 이론들이 특히 음악, 신체, 마음과 정신 간 관계에 대한 사변적 사고라는 호든의 주장에 동의한다. 정신신체적 요소들이 흔히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음악의 치유적 효과에 대한 역사적 또는 경험적 문서들을 제쳐두고 음악(과 드물게 의학)에 대한 논문에서 몇 세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끈질긴 일화와 가설들을 다룬다. 호든이 표현한 것처럼 음악치료는 의학의 ‘비주류 학문’이다.

사변적인 형이상학적 요소는 음악과 치유에 대한 ‘뉴에이지’ 문헌에서 흔한 것이기도 했다(3.12장 참조). 현대의 음악치료는 과학적 사고, 임상적 근거, 경험적 문서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언급된 이론들은 직군 내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대의 사변적 이론들은 여전히 유용하고 유의미하며 영감을 주는 비유와 은유, 이미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Horde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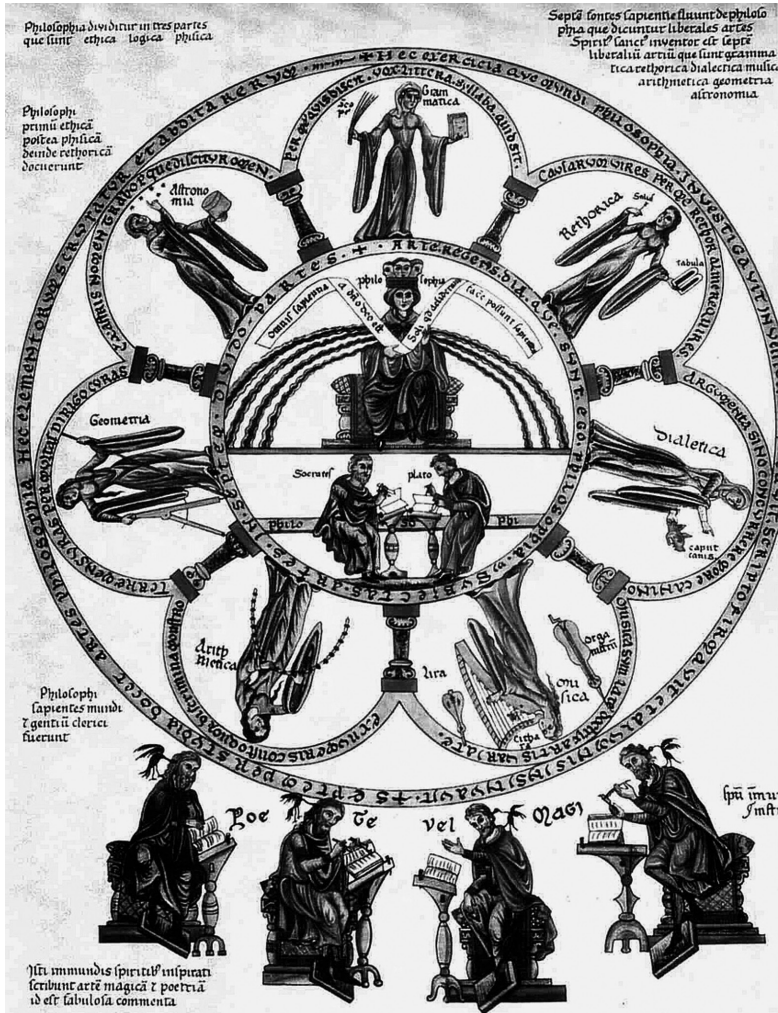


그림 1.1.1 자유 학예

수녀원장 헤라드 폰 란츠베르크(12세기 중반)에 의한 중세 필사본 '호르투스 델리카아룸'의 7가지 자유 예술('자유 학예')의 우화적 표상. 중앙에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위쪽에, 자신의 왕좌에 앉은 필로소피아(성스러운 지혜)가 있다. "나, 철학은 나의 과목을 7영역으로 나눈다." 이는 필로소피아의 가슴에서 빛은 왼쪽으로, 셋은 오른쪽으로 쏟아진다. 오른쪽으로 쏟아진 3학 중 (최상단의) 그라마티카는 핸드북을, 레토리카는 명판, 다이알렉티카는 개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왼쪽으로 쏟아진 4학 중 무지카는 3현 악기(하프와 두 개의 리라)를, 아리스메티카는 계산 도구를, 지오메트리아는 자와 컴퍼스를, 마지막으로 아스트로노미아는 황도 12궁을 위한 둥근 자를 들고 있다. 무지카가 말한다. "나는 무지카이며, 나의 과학은 종합적이고 다양하다." 하단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원의 바깥 부분에 4명의 시인이 자리한다. 시인들은 운율, 신화와 마법에 관해 저술할 때 악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림 1.12 피타고라스의 4학

중세의 음악 이론가들은 누가 음악을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피타고라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발이라고 말했다. 유발은 창세기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라고 전해진 사람이다. 이론가이자 시인인 요한네스 홀란드리누스는 두 명의 중세 이론가를 포함하여 "피타고라스가 음악을 만들었고, 보에티우스가 음악을 전승했다. 귀도는 음들을 살펴보고, 유발은 선율을 기록했다."라고 전형적인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림은 프랑키누스 가푸리우스의 '음악 이론(Theorica Musica)'에 나온 것이다. 위쪽의 왼쪽 칸은 유발을 보여주고, 대장장이의 망치 두 쌍 사이에는 음정 비율이 제시된다. 왼쪽은 4:8:16, 오른쪽은 6:9:12로 (아는) 다음 음정을 만들어낸다. 5도(4:6), 4도(6:8), 장2도(8:9)와 4도(9:12와 12:16) 및 음열 A-E-a-h-e-a. 동일한 음열이 다른 세 칸에도 나타난다. 여기에 피타고라스가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 즉 종, 유리잔, 6현 일현금과 (자신의 학생 필롤라오스의 조력을 받아) 3개씩 플루트를 연주하는 두 사람 등이 있다.

소우주와 대우주의 진동 이론

후기 현대의 서구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을 상품, 소비재로 여긴다. 사람은 (상업적으로 분포된) 음악 경험(콘서트, CD, MP3 파일, 뮤직비디오나 스트리밍 서비스) 간 선택이 자유로우 이는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서구 문화에는 여전히 음악과 건강이 (생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 전통은 (서기 500년경) 전설적인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시대의 초기 그리스 의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18세기와 19세기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며(아마도 막 주변화되었을 것이다) 경험적, 통계적 원리에 기반을 두어 현대 자연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목격했다.

분리된 지 거의 250년 후인 최근에야 의학, 보건심리와 음악치료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서며 인간은 (늘 아주 환상적인)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생의학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을 선호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질서에 따라 신체, 마음과 정신이 통합된 존재이며, 음악은 모든 수준에서 종합적인 효과와 의미를 지닌다.

피타고라스는 이를 2,500년 전에 깨달았다. 또한 (제자들에게 의해 우리에게 전달된) 피타고라스의 철학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기본적인 발견들은 단순하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아는 한) 신비주의자이며 경험적으로 작업했던 진지한 과학자이기도 했다(그림 1.1.2 참조).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감각과 사고로 주변 세계를 연구했고, 인간과 문화에 대한 자신의 발견이 갖는 함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피타고라스의 작업 도구 중 하나는 소위 **일현금**이라는 단 하나의 현을 가진 척도이자 음악적 ‘도구’였다. 이 악기로 피타고라스는 둘 또는 그 이상 음들의 비율로 음과 음정을 실험하고, 인간의 의식과 그 관계를 실험할 수 있었다. 피타고라스의 발견은 여전히 유의하다.

음악은 **물리적** 수준으로 존재한다. 현은 특정한 속도에서 진동에 의해 음을 생성하고, 오늘날 우리는 표준 음고 A가 (헤르츠Hz로 측정되는) 분당 440회의 진동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는 동일한 속도로 주변 공기의 분자를 진동하게 만듦으로써 가청적이 된다. 이 진동들이 청취자의 귀에 닿을 때 뇌의 복잡한 지각적, 인지적 작동이 오케스트라의 조율을 위해 오보에가 연주하는 음이 A라는 결론으로 청취자를 이끈다. ‘표준 음고’란 사실 역사적인 절충(안)이다. 17세기 말, A는 부분적 변동이 있으나 415Hz로 동일했다. 베를린 필하모닉과 같은 현대의 오케스트라에서 음고는 443Hz이거나 더 높다. 이는 오케스트라

의 소리를 좀 더 탁월하게 만든다. 오늘날 음의 진동 속도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피타고라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피타고라스가 (정확히) 측정한 것은 현이나 종이 생성하는 음과 음정 간의 수학적 비율이었다. 일현금을 사용하여 피타고라스는 현의 길이와 음고 간의 관계라는 일련의 법칙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만일 일현금의 현이 자유롭게 진동한다면 기본음은 '1'이라는 현의 길이에 상응한다(예를 들어 440Hz). 현이 반으로 나뉜다면 현은 2배의 속도로 진동한다(2:1-880Hz). 현이 셋으로 나뉜다면 진동은 3배 더 빨라질 것이다(3:1-1,320Hz). 현 길이와 진동 속도 간에 규칙적인 수학적(비율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물리, 수, '체body'이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음악을 심리적 수준으로 경험하는가? 우리는 진동을 음으로, (때로) 음들의 상호작용도 음악으로 경험한다. 현의 길이와 진동 속도는 물리적 세계의 정확한 비율인 양quantity을 측정할 수 있다. 음(과 음악)은 특질로 인간의 마음에 의해 해석되는 진동 현상이다. 질적 관점에서 진동을 연구할 때 반으로 나뉜 현은 전과 동일하지만 한 옥타브 더 높은 음을 생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옥타브는 음향과 심리음향의 기본 원리이며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옥타브가 없으면 남성과 여성(과 아동)은 동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옥타브는 보편적 현상이며 음악(인간이 생성하는 시간적으로 배열된 소리)도 옥타브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옥타브는 여러 방식의 선법과 음계로 분배되고 조직될 수 있으며 문화 특정적이다.

(전체 현의) 2/3 현 길이는 5도를 만든다. 1/4 현 길이는 기본(음)보다 두 옥타브 더 높은 음을 만들 것이다. 1/5 현 길이는 두 옥타브에 장3도 더 높은 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기타로 하나의 현만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하여 우리가 다루는 자연 법칙—양적/물리적 현상과 질적/심리적 경험 간의 관계—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정 간 관계는 비례 수나 비로 표현될 수 있다.

- 옥타브=2:1
- 5도=3:2
- 4도=4:3
- 장3도=5:4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단3화음, 장3화음과 장2도는 배음의 속성

이나 속성열 때문에 각기 다른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¹

피타고라스는 음들도 예를 들어 (어떤 암반 형성물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바람이 돌로 만든 원주체의 공기를 진동하게 만드는 ‘풍명금’처럼 자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자연음 생성을 위한 물리적 원리를 알지 못했고, 그 원리들은 피타고라스에게 이론적으로 부적절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원주체는 기본음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자연 배음(부분음)도 만들어낼 수 있다. 배음은 부분음으로도 불리며, 기본음에서 1번으로 계수된다. 부분음의 상대적인 힘은 악기마다 다르므로 악기의 특정한 음색에 기여한다. 이러한 배음들은 견고한 암반 형성물, 긴 플라스틱 ‘뱀’, 키나 스톱이 없는 관악기에서든, 배음 가창 중 취구에서든 상관없이 동일한 순서로 생성된다.

- 첫 번째 배음(=2번 부분음)은 옥타브
- 두 번째는 5도
- 세 번째는 다음 옥타브
- 네 번째는 장3도
- 다섯 번째는 (다음) 5도
- 여섯 번째는 (우리의 현대적인 서구 특성의 귀에 ‘음이 안 맞는’ 것으로 들리는) 일곱 번째/7도
- 일곱 번째는 다음 옥타브
- 여덟 번째는 장2도, 기타 등등.

점차 5음음계, 온음계와 반음계의 음정이 나타난다. 악기를 만들거나 연주할 때처럼 음악가들이 실용적, 음악적인 목적으로 채택할 때 이 체계는 복잡하고 종합적이다. 또한 여러 실용적, 심미적 문제(문화적 선호를 언급하지 않고)들이 관련된다.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는 수행 실재라는 필요에 있어 자연 음정 비율을 조정하는 각기 다른 ‘조율 체계’의 개발과 악기 테크놀로지를 통해, 예를 들어 관악기에 키나 스톱을 추가함으로써 화성적 시퀀스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음보다 다른 음을 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음악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와 선호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이를 음악적 실

1 www.oxfordmusiconline.com 참조.

제로 변형시킨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이 자연 법칙에 기반을 둔 것을 발견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인간의 마음은 (규칙에 맞는) 진동과 음(의) 비율을 음악적인 음과 음정으로 지각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학파의 사고에서 음과 음정은 우주에 대한 반영, 영적인 수준이기도 하다. 이 수준은 불가청적인 것이나, 인간은 천체들도 따르는 우주의 원리를 반영하거나 숙고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학파에 따르면 행성은 가청적인 음악으로서 동일한 빈도와 비율로 진동한다. 이것이 **천구의 음악**이다. 음악적인 음이 조직된 질서는 신체, 마음과 정신을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것, 즉 대우주적 질서의 소우주적 반영이다. 이 철학은 이후 플라톤에 의해 발전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저술하기로 했다. 이 이론이나 원칙이 고대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전 음악학뿐만 아니라 고전 의학적 지식과 대학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세 대학은 기하, 수학, 천문학과 음악을 포함하는 **4학**과 문법, 수사와 논리를 포함하는 **3학**으로 나뉘었다(그림 1.1.1 참조). 이러한 원리에 자신의 업적 기반을 둔 마지막 선구적 과학자 중 한 사람이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인 요하네스 케플러이다. 마지막 논문 '**우주의 조화(세계의 조화)**'(1619)에서 케플러의 야망은 조화로운 우주에 대한 피타고라스학파의 고전 원리와 경험적 천문학의 결과를 결합하였다(Erichsen, 1986). 다시 말해서 몇 세기 동안 종교적, 철학적 불일치와 반대로 음악은 세 수준의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우리가 현대의 과학적 맥락에서 오늘날 (재)발견하거나 재정립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보에티우스 이후) 중세 음악철학은 다음 항목 간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 **우주의 음악** *musica mundana* : 영적인 수준. 음악은 형이상학적인 원리이자 가장 깊은, 우주적 진실의 경험으로 가는 길이다.
- **인간의 음악** *musica humana* : 영혼이나 마음의 수준. 음악의 도덕적, 윤리적 잠재력이 드러난다. 여전히 음악의 감각적 차원을 다루지 않으나 그 잠재력을 가지고 마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윤리적 차원을 향해 마음을 연다.
- **악기의 음악** *musica instrumentalis* : 신체의 물리적 수준. (악기와 목소리의) 음악이 소리를 내며, 인간에게 들릴 수 있다. 상향식 관점에서 음악이라는 경험은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위한 전제조건이거나 이를 향한 '관문'이다.

수준에 대한 병렬적 기술은 모든 주요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다(음악치료 이론의 역사, 음

악철학과 그 연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읽기는 Byers, 2016; Horden, 2000; Ruud, 1990 참조. 인간은 ‘음이 안 맞거나’, ‘잘 조율된’ ‘악기’로 간주되었다. 음악의 조화로운 비율도 육체에 스며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우아하게 표현한 고전 철학을 발견한다(베니스의 상인, 5막).

불멸의 영혼 속에는 이러한 화음이 있소. 그러나 이런 흠투성이의 쇠약한 육체가 못 들
어오게 철저히 막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소.

‘조율’은 현대의 발달심리학(스틴)과 음악치료 이론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철학자 로이스 트루프의 업적에서도 가장 애용되는 은유이다. 로이스트루프의 개념은 현대의 음악 교육에 채택되었으며, ‘음악적 조율’은 음악에 헌신적으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Fink-Jensen, 2007).

체액의학

음악은 유럽 대학의 고전적인 강의계획안에 한자리를 차지했다. 음 체계 및 화성/협화 및 비화성/불협화 비율에 대한 피타고라스학파의 버전을 포함하는 음악 이론은 ‘자유로운 예술(자유 학예)을 육성하는 자유로운 인간’ 중 공통 과목이었다. 고전적 원칙은 **체액의학**(또는 **체액병리학**)과 같이 수 세기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진 원칙과 우세한 의학 이론들을 결합했다. 체액의학에서 건강은 4가지 신체의 액체 또는 ‘체액(혈액, 점액, 황담액, 흑담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건강이 좋다는 것은 체액 간 조화로운 균형의 결과인 반면, 질병은 체액 간 일종의 불균형을 반영했다. 역사적으로 이 원칙은 서기 400년경 로마 제국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변인 중 하나인 영향력 있는 의학 이론가 갈레노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18세기 의학 이론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체액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사혈은 19세기가 되어서야 활용되었다.

음악은 체액 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치료적 도구로 간주되었다. 음악 이론에 대한 중세 논문들의 역사적 연구는 그것이 보통 체액, 기질, 천체 및 음악과 상관이 있는 획기적인 사변적 체계를 포함함을 밝히고 있다.

로버트 플러드의 잘 알려진 ‘신성한 일현금’(1617)이나 아그리파 폰 네테스하임(1510)의 이론이 역사적 시기에 대한 이해 및 음악과 인간의 3가지 수준—신체, 마음과 정신—이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수 있다.

- 물리적 세계/인간의 신체/음악의 진동
- 언어의 세계/인간의 마음/음악의 음과 음정
- 우주/인간의 정신/음악의 신성한 비율

또 다른 좋은 예는 프란키누스 가푸리우스의 실용 음악(1496)이다(그림 1.1.3 참조).

에토스 원칙

철학의 역사는 서구의 철학자(예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쇼펜하우어, 니체)들이 개인을 위한(사람의 건강에 대한 문제), 국가를 위한(건강, 교육과 갈등에 대한 집단적 조정의 문제), 사회를 위한(사회적 가치, 윤리적 원리와 신념의 문제) 음악의 이론적, 실용적 역할을 면밀히 고려했음을 기록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요소, 예를 들어 ‘중용’의 원리는 유명한 지식으로 여전히 존속된다.

의학의 역사는 고전적인 ‘영양학’이나 히포크라테스와 그 계승자들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행동이나 원칙 등 건강을 증진하는 규칙의 여러 예를 포함한다. 소수의 의사는 (아랍 의학에서 좀 더 공통적인) 통합적 요소로서 음악을 포함시키는 실제적 처치 체계 또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특정 질병에 대한 음악의 활용을 위한 다소 사변적이고 규범적인 원리에 조화로운 신체의 진동이라는 고전 원칙을 더한 것에서부터, 실험과 의학적 또는 사회적 경험에 기반을 둔 음악의 임상 적용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권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발전한다.

음악과 마음

플라톤의 국가(제3권)의 유명한 단락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음악의 영향력에 관해 잘 알게 된다. 글라우콘과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나태 또는 슬픔을 장려하는 선법(리디안과 믹소리디안)을 유보하는 반면, 인간에게 조화롭고 용감한 삶을 장려하는 특정한 리듬과 선법(도리안과 프리지안)의 활용을 찬양한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에게 음악에 관한 것보다는 완전한 국가에 대한 플라톤의 이상에 관해 좀 더 잘 알려주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수 세기에 걸친 음악 이론과 의학 이론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대한 음악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유사한 아이디어들을 발견한다. 음악이 인간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리이므로 기분, 성격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1.13 가푸리우스

프란키누스 가푸리우스의 '실용 음악'(Milan, 1496)에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음악 이론에서 중요한 천구의 조화라는 천화(affinity)의 표상을 발견한다('선법의 상징적-도해적 표상'). 9뮤즈와 천구의 조화라는 연계는 고전 시대의 그리스 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푸리우스는 그 전통을 따른다. 맨 위에 자신의 왕좌에 있는 아폴론이 있다. 아폴론은 세계의 조화를 통치한다. '멘티스 아폴리네아이 비스 하스 모베트 운디케'는 '모든 뮤즈를 움직이게 하는 아폴론 정신의 힘'을 의미한다. 아폴론의 표준 리라는 (르네상스) 루트로 교체된다. 아폴론의 오른쪽에 3미신인 에우프로시네, 아갈리아와 탈레이아가 있다. 중앙의 축은 3개의 머리와 뱀의 몸을 한 생명체로 그려졌다. 이는 아폴론의 왕좌에서부터 대지까지의 전체 거리와 4요소인 물, 불, 공기, 토양의 천구를 덮는다. 이는 천체의 조화의 기반이며, 표의 오른쪽 - (해와 달을 포함하는) 7개의 행성과 천공 - 을 나타낸다. 왼쪽에는 9뮤즈 중 여덟이 그려져 있다. 아홉 번째(탈레이아)는 토양 아래에 묘사되어 있다. 2개의 가로 행 왼쪽에는 A-a 음에 해당하는 그리스 이름, 오른쪽에는 (대문자로) 선법의 이름과 그 음정(음이나 반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프리지안 선법 PHRYGIUS는 e음, 히파테메손(HYPATEMESON)에서 시작한다. 음과 행성들의 상관관계는 플라톤과 키케로(달 = A, 해 = D, 천공/하늘 = a)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체론적, 정신신체적 이해의 예는 신학자이자 점성가이며 음악가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위인 마르실리오 피치노(1433~1499)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치노는 전체론적 보전 원칙을 위한 지침, ‘자연 마법’ 이론을 만듦으로써 (플라톤의 음악 이론을 포함하여) 플라톤주의 철학을 기독교 신조와 결합하고자 했다. 피치노는 영혼을 각 개인과 ‘세계 영혼’(천상과 토양의 중보자) 간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는 신체와 마음 간 중보자로 간주하였다. 피치노는 신중하게 엄선되고 연주된 음악을 이러한 균형, 조화와 통일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했다.

목격자들은 피치노가 음악가들을 어떻게 특정한 의식의 상태에서 즉흥연주하게 했는지를 회상한다. 이 현상은 음악치료사들의 실제에서 인식하는 것이 꽤 쉬울 수 있다. 피치노는 음악가/치료사와 감상자/내담자 간 정보의 몰입을 허용하는 감상의 관점, 특정한 공감적 인식과 참여의 상태에 있었다(Voss, Horden, 2000에서 인용). 플라톤은 이 상태를 **푸로르 디비무스** *furor divinus*, 즉 광란의 상태라고 불렀다. 영혼이 신의 힘과 매우 일치하여 그 체화된 상태에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치료사는 역전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신체적으로 기반잡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음을 통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는 음악 문헌 외에 임상의학적 실제에서도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음악치료의 역사는 음악이 신체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인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어떻게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다수의 역사적 보고를 포함한다(Byers, 2016).

양자물리학과 복잡성 과학을 통한 고전적 아이디어의 부활

자연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해부학과 르네상스 시대 음악(과 3수준의 이론적 체제) 이후에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의학은 점차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소수의 의사가 여전히 음악으로 실험하고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Myskja, 1999 참조), 전반적으로 의학은 다른 문제들에 열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뉴웨이브’ 시대, 특히 물리학, 심리학, 의학과 음악학 내에서의 ‘뉴웨이브’ 철학이나 패러다임이 나타난 후에야 비로소 고전적인 주제와 원칙들이 부활하고 현대의 과학적 발견들과 결합되었다. 이는 다소 신중하게, 다소 사변적으로 수행되었으나 20세기의 마지막 10년에는 고대 아이디어들의 복귀가 다소 목격되었다. 인간의 신체-마음을 ‘조울할 수 있는 악기’로 간주하는 것과(Halpern, 1985), 음악이라는 소우주에서 대우주의 반영을 보는 것이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비평적

논의에 대해서는 Summer, 1996 참조).

이 부활의 좀 더 진지한 부분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로서 현대의 양자물리학과 신체적 문제의 상태 간 역설적 관계에 대한 그 선풍적인 시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 역설의 함의는 —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의로부터 스티븐 호킹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 인식론 뿐만 아니라 발생론, 과학적 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음악치료 이론에도 반영되었다(Crowe, 2004; Eagle, 1991). 우주적 질서라는 개념은 인간에 대해 독립적이며 음악이라는 우주에 반영된다. 이는 의미의 3가지 수준 가운데 하나인 ‘암시적 질서’를 고려한 켄 브루샤에 의해 제안되었다(Bruscia, 2000; Ruud, 2000; 이 책의 1.3장도 참조). ‘공명’은 문제와 인간 간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과정이 꽤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복잡한 개념이다(Lindvang et al., 2018).

과학자들이 복잡성 이론을 받아들이고, 삶을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다른 수준 간 불변의 여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물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음악을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특정한 질서 — 적합한 은유나 비유 — 로 여길 수도 있다. 음악은 신체,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우주적 원리들을 반영한다. 이는 음악과 의학이라는 고전 이론들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기본 가정은 거의 과학적으로 연구되거나 면밀히 기록되지 않았다. 현대의 음악치료 이론과 실체는 3수준에서 모두 옛 아이디어들을 재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며 옛 아이디어에 새로운 — 아마도 근거 기반의 — 체제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 장 맨 처음에 실린 인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음악의 영향력에 매우 정통하였으며 그 지속력을 제한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치료에서의 음악, 치료로서의 음악에 체계적, 과학적으로 기반을 둔 적용은 영구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2 음악치료의 정의

라르스 올레 본데

음악치료는 직군이냐 학문인 연구의 한 분야로 지난 75년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전문적 학문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직군이냐 학문으로서 음악치료를 정의하는 과정은 특정한 임상가 집단의 지향이나 관점, 또는 각기 다른 문화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유명하고도 아주 짧은 정의는 1990년에 노르웨이의 선구자 에벤 루드가 만든 것이다. “음악치료는 행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을 활용하는 것이다”(Ruud, 1990, p. 24).

그러나 좀 더 특정한 맥락에서 이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종류의 행동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가? 음악치료를 정의하는 과정은 여러 국가에서, 각기 다른 전통을 통해 그 직군 자체가 발견되었던 방식도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치료를 정의하는 과정은 3가지의 주요 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 임상가의 전문적 배경
- 내담자의 요구
- 처치²에 활용된 접근

1996년 이전에는 공식적인 국제적 정의가 없었으며 영향력 있는 책 음악치료의 정의 (Bruscia, 1989) 초판에는 50가지 이상의 정의가 제시되었다. 세계음악치료연맹WFMT은 1996년에 첫 번째 공통 정의를 만들었으며 2011년 버전은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는 삶의 질을 최적화하고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의사소통적, 정서적, 지적,

2 일반적으로 treatment는 문헌에서 ‘치료’로 번역되나 이 책에서는 therapy와의 구분을 위하여 ‘처치’로 번역하였다. 처치란 병리적 상태의 원인 그 자체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내담자의 행동을 증상으로 간주하여 중재하는 음악치료의 의미와 동일하다. 본문을 읽을 때 처치는 치료로 치환하여 이해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역자 주).